

새만금의 새로운 이름 '아리울(Ariul)'은
물의 순 우리말인 '아리'와 율타리를 뜻하는 '울'의 합성어로
'물의 도시'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수록
흥미로운
여행

미래는 어느 땅 새만금 이야기



contents

- 4 한눈에 보는 새만금 문화지도
- 6 새만금 간척사업이 걸어온 길
- 8 특별한 땅, 새만금 1 자연이 가져다 준 선물
- 10 특별한 땅, 새만금 2 동아시아 교류와 갈등의 공간
- 12 특별한 땅, 새만금 3 땅이 들려주는 상생과 개벽의 역사
- 14 건강하고 자유로운 이상향, 신선 세계를 꿈꾸다
- 17 테마 여행 1 신선 따라잡기
- 18 새로운 문명세계를 향한 터
- 20 테마 여행 2 미륵불교 유적 따라잡기
- 22 실학을 꽃 피운 유교의 땅
- 23 테마 여행 3 반계 유적 따라잡기
- 24 새만금, 그 개벽의 땅
- 26 테마 여행 4 동학 유적 따라잡기
- 28 새만금, 그 상생과 화합, 그리고 조화
- 30 부안, 새만금의 갯벌
- 32 아름다운 비경, 변산반도
- 36 고군산군도, 12동파 이야기
- 40 호국과 바다의 도시, 군산
- 42 대한민국 최고의 지평선, 김제
- 46 새만금의 미래
- 48 새만금에서 빛나는 미래가 펼쳐집니다

새만금은 새로운 문명이 창조되는 미래의 땅입니다

새만금 지역은 한반도 서남쪽의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를 중심으로, 그 외곽의 고창과 정읍, 전주와 완주, 익산까지를 아우르는 권역입니다.

드넓은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인 새만금 주변지역은 예로부터 다양한 종교적인 사상이 태동한 최고의 길지로 풍수적인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김제에서는 백제 11대 비류왕 27년에 벽골제 제방이 축조되었는데 그 길이가 3.3km로 어쩌면 새만금방조제의 원조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날 새만금은 부안군 대항리에서 신시도를 거쳐 군산 내초도에 이르는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를 1991년 11월에 착공하여 2010년 4월 준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위치에 걸맞게 새만금에 산업, 관광, 레저, 국제 업무, 환경, 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경제중심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여의도의 140배에 이르는 401㎢의 광활한 간척지 위에서 천혜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탄생하게 될 새로운 글로벌 명품 도시. 새만금의 미래는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새만금의 C.I는 '물의 도시'인 새만금의 지리적 특성과, 자연과 인간이 상생·융합하는 글로벌 녹색 터전으로서 새만금의 지향점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밝은 녹색은 지형과 녹색 도시를 상징하며, 회색은 세상의 모든 사상과 문물이 조화하는 글로벌 도시를, 청색은 경제·산업·문화·관광·생태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복합 도시를, 밝은 청색은 무한한 자원인 물과 수변도시를, 그리고 노란색은 인간 중심의 휴먼도시를 각각 상징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미륵사지석탑

대아저수지

운장산

용강댐

반경강 박물관

익산시

군산시

자현대

성보암

망해사

빈가섬

완주군

김제시

전주시

진안군

마이산도립공원

보악산

금상사

백골제

부안군

의상봉

부안댐

내소사

변산반도도립공원

해성강

적벽강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군

백장산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 (동진강 박물관)

옥정호

임실군

선유도

장자도

부녀도

신시도

야미도

비응도

계화도

가력도

비안도

위도



새만금 간척 사업이 거쳐 온 길

갈등에서 상생으로

‘새만금’을 간단히 풀이하면 ‘새로운 만금’이라는 뜻입니다.

새만금 사업은 1971년 금강·만경강·동진강 하구 갯벌을 매립한다는 계획으로 출발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경이 있었기에 새만금 지역은 지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미래의 땅이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지역에는 그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새만금이 신조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호남평야는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금만평야라고 불렸습니다. 금만이 새만금이 된 것은 1986년경의 일입니다. 금만을 만금으로 바꾸고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하여 만금 앞에 새자를 붙여 새만금으로 불렸습니다. ‘새로운 만금의 땅’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지요. 또 ‘옥토를 새로이 일구겠다’는 뜻도 담겨 있으니, 여러 모로 기분 좋은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프로젝트

새만금이라는 지역명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만금 지역은 수많은 우여곡절의 주인공이 됩니다. 1991년 기공 이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은 1995년 무렵 환경담론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후 10여 년간 새만금은 환경 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일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비판과 공방, 시위와 소송 등

에 휘말리며 ‘세계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에서 우리 사회 갈등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간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가장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으로

새만금 사업은 200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서 10여 년간 이어져온 지리멸렬한 법정 공방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지역은 2008년 정부가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만들기’에 착수하면서 마침내 비상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새만금 지역은 이제 오는 2020년까지 세계경제자유도시이자 동북아 미래형 신산업 및 관광 레저의 허브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녹색 성장과 청정생태 환경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게 될 새만금. 이제야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만금(萬金)의 땅’이라는 기분 좋은 새 이름의 위상을 찾게 된 셈입니다. 🌈





특별한 땅
새만금 1

자연이 가져다 준 선물

새만금 지역은 지리적으로 최고의 조건을 갖춘 축복의 땅이에요.
대한민국 최대의 농경지와 서해 중부의 바다를 모두 겸비한 땅,
바다와 섬과 평야와 산이 조화를 이루며 풍부한
자산을 선사하는 땅, 동아시아 해상 경로의
중심 위치. 이러한 지리적 우수성은 모두
자연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로는 임실·진안·장수·무주 등의 산악지대로 이어지
게 됩니다. 한 마디로 서쪽으로 평야와 바다를 향해 열
리고, 동쪽으로 산악에 둘러싸인 지형적 특징을 지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운이 서해로 빠져 나갔지만,
새만금방조제가 막힘으로 새로운 문명의 기류가 새만
금 지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용담댐의 금강물
과 옥정호의 섬진강물이 새만금 지역으로 보충되고 있
으며, 갈등으로 막힌 왕궁축산폐수문제도 새만금 지역
을 통해 트임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갈래가 분명한 지형적 특징은 전북의 서부 지역,
즉 새만금 지역만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고유의 문화에 새로 유입된 문화가 서로 융합·보존·상
생·조화를 이루어 개방적이면서도 전통과 생명을 중시
하는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한 곳입니다.

동아시아 뱃길의 허브

역사에 따르면 영생을 기원했던 고대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가 있다는 삼신산을 찾아 많은 방식들을 파견했다
고 해요. 그가 서복이라는 인물을 시켜 파견한 탐사길 가
운데 하나가 바로 산둥반도에서 우리나라 서해로 이어지
는 바닷길. 그런데 서복이 답사한 '삼신산 해상루트'가 이
곳 새만금 지역이었답니다. 실제로 새만금 지역은 예로
부터 호남의 삼신산으로 알려져 있는 부안 변산, 정읍 두
승산, 고창 방장산 등이 모여 있는 영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넓게 보면 새만금
지역의 위치가 동아시아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새만금 지역은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 경로의 중심에 있어 예로부터 중요한 국제적 요충
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지역은 국제적
으로 얼마나 특별한 곳이었을까요? 🌈

풍요로운 대지, 끝없는 지평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에 펼쳐진 금만평야는 '이 배미 저
배미 할 것 없이 모든 논이 한 배미로 연결돼 있을 정도
로 드넓다'는 뜻으로, 옛 사람들에게 '징개맹개 외배미
들'이라 불려왔습니다. 더구나 두 강으로 흐르는 물줄
기는 이 드넓은 땅을 항상 비옥하게 만들어주지요.
해안도 마찬가지예요. 새만금 지역의 바다는 봄여름 고
기잡이철이 되면 각 고을 장삿배가 구름과 안개처럼 모
여들 정도로 훌륭한 어장입니다.
이처럼 풍요롭고 비옥한 자연 조건 덕분에 새만금 지역
은 예로부터 나라의 창고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흥
년이나 역병으로 나라에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나면 이
지역이 온 나라의 백성을 구휼했으니까요. '대한민국 최
고의 쌀 생산지', '온 나라의 흥년을 구하던 들판', '나라
의 알짜배기 곳간'. 이러한 명성은 바로 새만금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막힘과 트임의 이중 구조

새만금 지역의 지형은 서쪽 끝 고군산군도의 도서 지역
에서부터 해안과 중서부의 드넓은 평야를 거쳐 동쪽으

새만금의 국제성, 동아시아 교류와 갈등의 공간



동아시아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특성과 비옥한 토지로 말미암아 새만금 지역은 예로부터 국제적인 사건들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때로는 교류의 터전이, 때로는 갈등의 발미가 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뛰어넘어 화해와 상생의 미래 공간으로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

새만금 지역이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은 앞서 소개한 진시황의 삼신산 해상탐사 루트의 마지막 항해지였다는 사실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연(燕)의 장수 위만에게 쫓긴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유민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와 마한에 왕국을 세워 정착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마한·백제의 꽃밭'이라 불리는 지금의 익산 금마 땅입니다. 지금도 익산 지방은 금마를 중심으로 약 180여 곳에서 청동기 유적·유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발견된 유물이 고조선 초기의 비파형동검에서부터 후기형인 세형동검까지, 북방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와 계통을 같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금마에 정착한 고조선 유민이 토착 세력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꽃 피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신화적 인물인 최치원의 이야기에서도 새만금 지역의 동아시아 교류의 흔적은 쉽게 발견됩니다. 최치원이 신시도 영월봉에서 글을 읽으면 그 소리가 중국에까지 들

렸다는 전설은 이 지역과 중국의 접근성을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능화의 <조선무속고>에 따르면 “어느 날 당나라의 한 상인이 최치원을 보고 기뻐하면서 당나라로 데려갔는데, 과연 치원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고려시대는 중국 송나라와 교역이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송나라의 사신 서궁이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당시의 외교 루트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의 사신과 상인들은 항시 사단항로의 항해 중에 새만금의 위도와 고군산을 중간 기항지로 활용했습니다. 송의 사신단은 위도에 정박한 후 고려 사람들이 배에 물을 싣고 와 제공하니 물품으로 답례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다음날에는 고군산에서 고려의 영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역사 속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갈등'

서기 663년 새만금 지역에서는 동아시아 4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당시 신라의 문무왕은 날로 강성해지는 백제 부흥군을 꺾기 위해 당나라



의 수장 유인궤와 함께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부안 우금산성인 주류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제명여왕은 멸망한 백제를 되살리기 위해 군사 2만7천 명, 전함 1,000척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파병합니다. 일본군이 상륙한 곳이 바로 지금의 동진강 하구인 백강입니다. 백강에는 마침 미리 포진해 있던 당나라의 전선 170척이 있어, 수륙을 오가는 일대 격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백강전투로 전해지는 역사적 사건이 그것입니다. 군사의 위세로 보면 단연 백제와 일본이 유리했지만, 날씨는 나당연합군의 편이었습니다. 당은 불화살을 주무기로 좌우에서 일본 전선을 받아쳤는데, 바람을

미리 살피지 않은 일본 전함들은 뱃머리를 돌릴 수조차 없어 일순간 궤멸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백강전투의 패배에 이어 주류성마저 함락 당했으며, 이를 계기로 백제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세계 해전사에서 최초로 화포가 사용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군산인 진포에서 있었던 최무선 장군의 진포대첩이 그것입니다. 진포대첩은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 500여 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곡식을 노략질하기 위해 진포에 침입한 왜적을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써서 패퇴시킨 대승전이었습니다. 군산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10월 진포대첩을 기념하는 행사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국제적 위상은 때로 이곳 사람들에게 피땀과 눈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곳을 식량생산기지로 삼으려는 일본의 수탈 정책이 그것입니다. 1899년 군산이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강제 개항된 것을 시작으로 1908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주-군산 간 도로가 포장되고, 다시 익산-군산 간 철도가 개통됩니다. 그리하여 군산은 1914년 부산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은 항구가 되었고, 1934년 한 해에만 200만 석(30만 톤)이 넘는 쌀이 군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풍요로운 땅을 가진 해상 교역의 요지라는 지리적 축복이 오히려 수탈의 역사로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조화'와 '화합', 그리고 '상생'의 땅

새만금 지역은 이처럼 동아시아 해상루트의 허브, 그리고 비옥한 땅과 연결된 항구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오랜 역사 동안 국제 교류와 갈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21세기 환황해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다시금 주목받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국제화 시대이며 그 중심으로 단연 동아시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환황해권 시대의 중심에서 조화와 화합, 그리고 상생의 새로운 희망을 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생의 미래가 새만금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



땅이 들려주는 상생과 개벽의 역사

새만금 지역은 한국 정신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개혁사상이 잉태된 개벽의 땅입니다. 이는 단지 '우연'이 아니라 새만금 지역의 독특한 역사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는 새만금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통종교와 기독교 등 다양한 사상과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초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저항과 개벽의 정신

대한민국은 국토의 70%가 산악 지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평선이 보일 정도로 드넓고 비옥한 평지를 갖춘 새만금 지역은 확실히 축복받은 땅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드넓은 평원은 오히려 외면을 받아 왔습니다. 왜일까요? 왕이 사는 성을 방어할 지형지물이 없기에, 도움으로의 가치가 떨어진 까닭입니다. 수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변한 궁궐도, 왕릉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도 새만금 지역은 항상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물산이 넘쳐나니 토호들의 힘도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경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출하는 큰 곳간이었지만, 반면 줄곧 수탈과 경계와 차별의 대상이 된 이율배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속의 새만금 지역에는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는 민초들의 땀과 애환이 짙게 배여 있었습니다. 고통받던 민초들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꿈꿨고, 미륵(메시아)과 개벽의 세상을 갈망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정여립이 신분차별을 넘어선 대동계를 이끌었고, 허균이 신분차별 사회를 비판하는 홍길동전을 지었으며, 반계 유형원이 실학의 개혁사상을 잉태했습니다. 온갖 차별과 소외를 떨치고 일어섰던 동학 농민군이 또 한 번 이곳에서 보국안민의 기치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늘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꾸던 사람들의 성지였으며, 모든 사람과 생명이 평화롭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복락을 누리는 이상향, 파라다이스를 향한 소망을 품어 왔습니다.

조화와 상생의 미학

여기에 해양·도서·하천·평야·산악의 다양한 자연 조건을 갖추고, 오랜 세월 동안 해양 문화와 내륙 문화가 융합되면서 정신적으로 유연한 개방성과 조화의 미덕이 자랐습니다. 드넓은 평원에서 한국 최대의 농경문화를 꽃피우는가 하면, 뱃길을 통해 중국·일본 등과 자연스럽게 문물을 교류하며 조화와 상생의 문화를 낳은 것입니다. 이 같은 자유와 혁신, 생명과 상생의 정신 풍토에서 독특한 사상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변혁운동이 나타나면서 새만금 지역에 고유한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성리학 일변도였던 조선시대에도 전통 문화의 3대 요소인 유불선 사상이 고르게 분포했고, 서로 다른 정신적 가치를 배제하기보다는 하나로 회통하고 새롭게 창조하려는 전통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지역의 변산과 모악산 등을 중심으로 한국 근대의 민족종교가 대거 일어났고, 개벽과 상생의 사상이 발전했습니다. 이 지역 민초들의 소망은 천지만물이 두루 상생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생태

이처럼 상생과 개벽의 땅인 새만금 지역이 최근 들어 다시 환경 담론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생태와 생명가치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논쟁과 갈등의 흑독한 시간을 겪으며 얻은 교훈을 통해 새만금 지역이 생명 가치를 중심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

건강하고 자유로운 이상향, 신선 세계를 꿈꾸다

새만금, 새로운 문명을 꽃피우는 땅

새만금 지역을 이야기할 때 신선사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새만금 지역은 신선의 땅이었습니다. 부안의 변산, 정읍의 두송산, 그리고 고창의 방장산은 신선이 사는 전설의 산을 뜻하는 호남의 삼신산이라 불려왔습니다.

최치원에서 시작된 한국 신선사상의 초월과 혁신의 정신세계를 만나볼까요?



신시도 고군산 군도에서 가장 큰 신시도는 최치원이 자주 올라 글을 읽었던 월영대로 매우 유명한 섬이다.

신선이 된 최치원

최치원(857~?)은 한국 도교 사상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역사 속의 그는 유불선 삼교를 모두 겸비한 대학자이자 사상이 그리고 동방 최고의 문장가였지만, 후대인들은 그를 속세에서 벗어난 신선으로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최치원은 수많은 수수께끼를 지닌 인물입니다. 신선 세계를 동경하고 선계에 오르기를 기원하는 시문을 남기기도 한 그는 말년 행방이 묘연한데, 가야산 해인사에서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주인공으로 한 작자 미상의 판타지 소설 <최고운전>은 기이한 탄생 설화에서부터 신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설화의 대부분이 이곳 새만금 지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돼지 탄생 설화

최치원의 탄생 설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최고운전>에서는 그의 아버지 최충이 고군산의 옛 이름인 문창에 수령으로 부임했는데, 부인이 금돼지에게 납치되었다가 되돌아와서는 6개월 만에 치원을 낳게

됩니다. 최충은 금돼지의 자식이라 하여 어린 치원을 길에 내다버리지만 백조들이 날아와 품어주고, 선녀들이 내려와 길러주었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최충은 잘못을 뉘우치고 치원을 데려오게 하지만, 어린 치원이 부모를 비난하며 거절하니 바닷가에 집을 지어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문창에 현령으로 부임한 그의 아버지가 내초도로 사냥을 나갔다가 직접 금돼지에게 납치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요괴는 해가 뜨면 금빛 돼지가 되어 사냥을 하고 밤이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현령을 유혹해 결국 치원을 낳습니다. 현령은 세상으로 돌아가려 하나 금돼지의 눈을 피해 외딴 섬을 빠져나갈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들 치원이 다섯 살이 되자 현령은 신세 한탄하듯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치원은 한참 궁리하더니 어미돼지가 가져다놓은 나무토막들을 엮어 몰래 뗏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어미돼지가 사냥을 나간 틈을 타 부자는 뗏목을 바다에 띄웠지요. 사냥에서 돌아온 어미돼지는 멀리 떠나가는 뗏목을 보고 헤엄쳐 코앞까지 뒤쫓아 왔습니다. 그러자 치원은 나무토막 하나를 던져 위기를 넘깁니다. 욕심 많

은 돼지가 떠내려가는 나무토막을 물어다가 다시 섬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잡힐 만하면 나무토막을 던지고 또 던져 결국 어미돼지는 힘이 빠져 죽고 아버지와 치원은 육지로 나올 수가 있었답니다.

물론 최충이 최치원의 아버지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또 최치원이 금돼지의 자식이었을 리 만무하지만, 금돼지 설화는 최치원이라는 인물의 비범함과 신령스러움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판타지입니다. 최치원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뱃길을 오가던 사람들에게 신처럼 추앙되던 절세의 문화 영웅이자 신선이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풍요와 영험의 상징인 돼지, 그것도 황금빛 돼지를 희생시키며 세상에 출현합니다. 뱃길의 풍요와 안녕을 염원하던 바닷사람들이 낙조에 황금빛으로 물든 서해를 바라보며 최치원의 탄생과 신선담을 주머니 받거나 말하는 풍경이 전설처럼 신화처럼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신시도 월영대의 글 읽는 소리

고군산군도에서 가장 큰 섬인 신시도. 이곳의 산봉우리에 있는 월영대는 최치원이 자주 올라 글을 읽었던

장소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런데 월영대에 얹힌 최치원 이야기도 두 가지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운전>에서는 중국 황제가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뜰을 거닐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낭랑하고 아름다운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멀리 바다 건너 동쪽 나라인 신라에서 들려오는 소리이며, 그곳에 현자가 많다는 말을 들은 황제는 돌함에 달걀을 넣고 초로 밀봉해 신라로 보냅니다. 석함 속의 물건을 가지고 시를 지어 보내라는 명과 함께 말합니다. 돌함에 든 물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조정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치원은 신묘를 발휘해 이미 달걀이 병아리가 된 것까지 알아맞히고 시를 지어 보냅니다. 탄복한 황제는 12세의 최치원을 중국으로 초빙해 글공부에 매진토록 하고 그는 18세에 마침내 장원급제해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의 총애를 시기한 신하들의 모함으로 결국 외딴 섬에 유배되는 신세가 된 치원은 인재를 몰라보는 세상을 한탄하며 신라로 돌아와 가야산의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이능화의 <조선무속고>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최치원은 어느 날 당나라 상인의 눈에 띄어 당나라로 떠납니다. 과연 치원은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해 관직에 오르고 그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후일 고국 신라로 돌아온 최치원은 6두품이라는 출신의 벽에 부딪쳐 포부를 펼치지 못하였지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치원은 전국을 방랑하다가 자신의 고향인 고군산군도로 돌아와 아름다운 월영대에서 글을 읽고 거문고를 타며 한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 글 읽는 소리가 얼마나 청아하고 아름다우며, 그 한이 얼마나 깊고 컸던지 최치원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까지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치원, 역사와 전설 사이를 오가다

그렇다면 역사 속의 최치원은 새만금 지역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출생지가 불확실한 그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에 경주 태생으로 나와 있지만, 조선시대에 서유구가 간행한 <계원필경> 서문 등에는 호남 옥구 사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인 이규경은 최치원의 본관이 경주인데 그의 아버지가 고군산에 지방관으로 와 있을 때 최치원을 낳아 중국으로 유학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고향에 관해 다른 설이 있다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890년 지금의 정읍시 태인면 지역인 태산군 태수로 봉직했는데, 이는 최

치원이 외직을 자청해 처음 맡은 자리였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피향정은 최치원이 처음 세운 정자이며, 무성서원은 태산 군수를 지낸 것을 기리기 위해 고려 때에 세워진 사당입니다. 현재 옥구향교에 옮겨져 있는 자천대는 최치원이 노닐던 곳으로 유명한데, 그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의 초기 기록에 이미 보입니다. 자천대 바로 밑에는 넓고 매끄러운 큰 바위가 있어 최치원이 앉아 글을 읽던 흔적인 무릎자국과 벼루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특히 최치원이 자천대 아래 비밀문서를 숨겼다는 전설로 말미암아 이곳을 행차하는 왕의 사신마다 자천대를 찾았다는 기록이 <택리지, 1751년>에 남아 있습니다.

새만금의 지명들도 최치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의 선유도는 신선이 노는 섬이라는 뜻이며, 옥구의 선연리는 신선과 연인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선연리에는 최치원이 어렸을 때 이곳 해변서 모래사장에 글을 쓰며 놀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허균, 그리고 <남궁선생전>

17세기 조선에서는 선도의 내단 수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새만금 일대에서 그 기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남궁두와 허균, 그리고 권극중 등으로 이어지는 선도문화의 큰 뿌리가 모두 새만금 지역에서 비롯된 이유입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이자 문장가로 평가되는 허균(1569~1618)은 1608년 공직에서 파직당한 후 부안 우반동 정사암에서 몇 년간 은거하며 자신의 양대 소설로 꼽히는 <홍길동전>과 <남궁선생전>을 남깁니다. 그런데 <홍길동전>이 허균보다 1백여 년 전 앞서 살았던 의적을 주인공으로 한 반면, <남궁선생전>은 허균이 직접 교류했던 도사 남궁두(1526~1620)의 행적과 수련 과정을 소개한 작품입니다. 평소 내단 수련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허균이 당대 선도 내단 수련의 일인자였던 남궁두를 통해 그 우수성을 표출한 것입니다. 현재의 군산(임피) 출신의 남궁두는 새만금 일대에서 도를 닦고 우반동에 기거하고 있는 허균을 찾아가 그 비법을 전수해 주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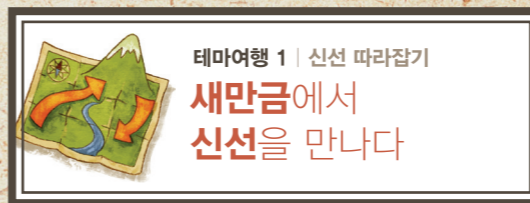
한편 남궁두가 문호를 열고 허균에 의해 크게 드러난 새만금 일대의 선도 수련 문화는 이후 권극중(1585~1659)에 이르러 그 결실을 맺습니다. 단학과 방술의 대가이자 우리나라 단학 이론의 개창자로 평가되는 권극중은 선도 수련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 <참동계주해>라는 조선 단학계의 중요 저서를 남깁니



다. 그가 태어나고 공부한 정읍 이평면의 서산마을은 책을 산더미 같이 쌓고 공부했다고 해서 지금도 '서산(書山)'이라고 불립니다.

새만금에 꽃 핀 신선 문화

새만금 지역은 신선 문화권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역사 이래 강렬한 신선 사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탐사대를 보냈던 '삼신산 해상 루트'에서부터 신선 왕검의 나라였던 고조선 준왕의 남하, 백제금동대향로에 아로새겨진 신선 세계, 바닷길의 신선으로 추앙된 최치원 판타지, 조선 중기의 허균과 남궁두, 권극중, 그리고 조선 말 지상仙境(仙境)을 세우고자 했던 개벽의 염원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이상향(파라다이스)인 신선 세계에 대한 꿈과 환상이 새만금 지역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꿈과 환상을 넘어 인류의 새로운 문명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새로운 현실로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신시도 新侍島

신시도는 면적이 4.2km²로 고군산군도의 63개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이었다가 지금은 새만금방조제가 연결되어 육지가 된 곳입니다. 199봉, 월영재, 월영봉 정상, 대각산 정상, 122봉 등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일일 코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라 때 문창현 심리(深里) 또는 신치(新峙)라고 불리던 신시도는 일제강점기에 신시도(新侍島)로 불려졌습니다. 신시도의 뜻은 '새로운 것을 모시는 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도시(新市)'가 되는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섬 바로 앞에 세계적인 관광 도시가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새만금의 꼭짓점에 있는 그 섬이, 옛 고조선이 열린 신시처럼 인류 문명의 새천년을 여는 미래의 '신시(神市)'가 되지는 않을까요?

신시도는 선유팔경의 하나인 월영단풍(月影丹楓)으로 유명합니다. 신시도에는 대각산과 월영산이 있는데, 월영산의 단풍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고기잡이배들이 단풍에 끌려 무심결에 섬에 다가갔다가 좌초되는 일이 많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시도는 최치원의 전설이 서린 곳입니다. 월영봉의 자취에 취해버린 최치원은 그길로 배를 타고 신시도에 도착하여 월영봉에 올라 그곳을 월영대라고 칭하고 돌담을 쳐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옥구향교와 자천대

조선 태종 3년인 1402년에 건립된 옥구향교는 인조 24년에 지금의 위치인 군산시 옥구를 상평리로 옮겨졌습니다. 이 옥구향교 안에는 최치원 선생이 글을 읽던 자천대라는 정자가 높다랗게 서 있습니다. 자천대는 본래 옥서면 선연리 하제 해안에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 초기 기록에 보일 정도로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자는 조선말에 옥구 군수 최학수가 세운 것으로, 그가 선조인 최치원을 기념하기 위해 원래 자천대 자리 곁에 아름다운 정자를 지어 바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 그곳에 군용비행장이 들어서면서 훼손위기에 처하자 인근 주민들과 유림들이 옥구향교의 경내로 이를 옮겨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군산시 옥구를 상평리 626번지

피향정

피향정은 통일신라 정강왕 때 태산 태수였던 최치원이 정읍 태인읍에 세웠다고 전하는 정자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며 다만 광해군 때 증건하고 현종 때 증수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 정자는 앞뒤로 상연지, 하연지 두 개의 연지가 있어 꽃이 피면 주위가 장관을 이루고 연꽃의 향기가 정자에 가득하다고 해 피향정이라고 합니다. 정면 5칸, 측면 4칸의 정자로서 매우 큰 규모로, 장초석을 받쳐 높게 마루를 구성한 후 그 위에 두리기둥을 세워 만든 누각 형식의 건물입니다. 또한 연등천장이 특징으로 호남 제일의 정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최치원이 태산태수를 지낸 것을 기리기 위해 고려 시대에 정읍 칠보면에 세워진 사당입니다. 최치원이 태수로 있는 동안 치적이 뛰어나 군민의 칭송을 받다가 합천 군수로 떠나게 되자 그를 흠모한 이들이 최치원 생사당(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모시는 사당)을 세우고 태산사라 부른 것이 시초였다고 전합니다. 무성서원은 특히 강당인 명륜당과 기숙사인 동재, 서재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 또한 사당으로 출발해 서원으로 변경되었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소재지 전북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

위도

섬모양이 고슴도치를 닮았다고 해서 고슴도치 위(蝟)자를 쓰는 위도는 부안군 격포항으로부터 14km 쯤의 서해 바다에 떨어져 있어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한 초기 황금어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도는 홍길동이 그리던 이상 세계 '율도국'과 효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는 '인당수'의 전설이 남아 있는 섬이며, 지난 1993년 10월 10일 10시 292명의 생명이 희생된 서해 횡리호 침몰사고로 인해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위도 해수욕장은 위도면 진리 벌금에 위치하고 있으며, 1km가 넘는 고운 모래사장과 백옥같이 맑은 물, 그리고 완만한 경사와 깊지 않은 수심으로 여름철 피서객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위도 해수욕장은 1969년에 개장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명 세계를 향한 터

새만금 지역은 민중과 함께 하는 미륵불 사상이 확산된 곳입니다. 이 지역 미륵불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은 진표대사와 부설거사, 진묵대사입니다. 진표의 미륵신앙은 환경과 문명이 조화된 세계로, 부설의 재가 불교는 평등의 이념으로, 생불 진묵은 대자유의 실현으로 상생의 이념이 관통돼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미륵 사상의 역사와 그 유적을 찾아가 볼까요? 또한 새만금 지역은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에서 전래되어온 천주교와 기독교가 전통과 조화하며 새로이 뿌리를 내린 곳이기도 합니다.

미륵 신앙, 새로운 희망

미륵 신앙이란 석가모니불이 그 제자 중의 한사람인 미륵에게 장차 성불해 제1인자가 될 것이라고 한 전설에서 발생한 신앙입니다. 미래불인 미륵은 석가모니가 할 수 없었던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대승적 불교로, 미래에 대한 민중의 새로운 희망이 표출된 신앙으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 변혁기에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기다리는 고통받는 민중들의 불교적 구세주에 대한 염원을 반영하면서 민간 신앙과 합쳐져 삼국시대부터 독특한 신앙의 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미륵불을 친견한, 진표율사

새만금 지역에서 시작된 미륵 신앙의 전파자는 통일신라시대의 진표율사(713~?)입니다. 김제시 만경면 출신인 그는 미륵 신앙의 본산지인 김제 금산사를 중창하고 우리나라 불교에 미륵 신앙을 뿌리내린 승려입니다.

진표율사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금산사에 출가했습니다. 열 살 무렵 개구리를 잡아 나뭇가지에 꿰어 물에 담가 놓고 잊은 후 이듬 해 봄에 다시 가 보니 그 개구리가 살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참회해 출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후 20대 중후반 무렵, 그는 내

변산의 의상봉 꼭대기 부사의방에서 몸을 부수는 참회기도로 지장보살의 계를 받게 됩니다. <삼국유사>에는 온몸을 돌에 치면서 기도하자 무릎과 팔꿈치가 부서지고 피는 바위에 비 오듯 적셨는데 14일이 지나자 지장보살이 나타나 정계를 주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올 때까지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입니다. 하지만 진표율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미륵을 친견하겠다는 의지로 다시 변산의 영산사로 옮겨 부지런히 수행을 이어나갑니다. 그러자 과연 미륵보살이 나타나 중생의 선악과 업보를 점치는 점찰경 2경과 189개의 간자를 전해주게 됩니다. 이후 진표율사는 평생을 대중 교화에 바쳤습니다.

초인적인 수행으로 미륵불을 친견한 진표율사는 당시 대중의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지나갈 때 사람뿐 아니라 그의 불법에 감동한 소까지 무릎을 꿇고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설거사, 평등의 이름으로

진표율사보다 70여 년 전에 살았던 부설거사(647~699)는 구비 전승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오다 조선 중기 영허(1541~1609)선사에 의해 새롭게 조명된 인물입니다. 그는 세속으로 돌아왔지만 불가의 가장 중요한 가



르침인 ‘평등’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경주 출신인 부설거사는 어려서 불국사에 출가해 영조, 영희라는 두 도반과 함께 지리산, 천관산, 능가산 등을 거치며 10년 동안 수도에 정진합니다. 세 사람은 오대산으로 참배하러 가던 중, 만경 두룽골 구무원의 집에서 며칠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집 주인에게는 18세의 병어리 딸 묘화가 있었는데 부설의 법문을 듣고 말문이 열리더니 이내 청혼까지 하는 것입니다. 승려인 부설이 거절하자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묘화는 자살을 기도합니다. 이에 부설이 결국 묘화와 부부의 인연을 맺자, 두 도반은 부설의 환속을 비난하고 오대산으로 떠납니다. 부설은 아들 등운과 딸 월명을 낳고 살면서 끝없는 정진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몇 년 후 오대산으로 떠났던 두 도반이 찾아오고, 세 사람은 지금까지 같고 닳은 서로의 도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질그릇 병세 개에 물을 가득 채워 줄에 매달아 두고 병을 쳐서 깨트리려도 물이 흘러내리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희와 영조의 병에서는 물이 흘러내렸지만 부설의 병에서는 물이 공중에 매달려 있었으며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부설은 참된 법신에는 생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설법을 한 뒤 단

정히 앉아 입적합니다. 아들 등운과 딸 월명은 출가하여 도를 깨우쳤으며, 부인 묘화는 110세까지 살다가 죽기 전에 집을 보시해 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자유를 실현한, 진묵대사

진묵대사(1562~1633)는 우주와 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감싸 안은 생불로 새만금 지역의 종교적 영웅입니다. 만경 태생으로 7살에 완주 봉서사로 출가한 그는 위낙 지혜가 뛰어나 스승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부처였던 까닭인데, 주지 스님이 어린 진묵에게 선단에 향 피우는 일을 맡기자 주지의 꿈에 신중이 나타나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는 신중인데, 오히려 부처님이 우리를 모시니 불편하다”고 호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처라는 확고한 생각은 선불교의 출발 지점으로, 결코 자신 밖에서 부처를 찾으면 안 된다는 암시를 담고 있습니다. 진묵대사의 도력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몇몇 아이들이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솔에 꿴 것을 보고는 물고기를 가엽게 여겼습니다. 한 소년이 먹고 싶으냐고 물었고, 진묵은 그렇다고 대답하고는 솔의 물고기를 다 먹여치웁니다. 이에 소년들이 조롱을 했는데, 진묵이 그들을 꾸짖은 후 옷을 벗자 물고기들이 쏟아져 냇가에서 자유자재로 노닐었다고 합니다. 또한 진묵대사는 출가승임에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극진했습니다. 하여 어머니를 자신이 거주하는 일출암 근처 왜막촌에 모시면서 도술로 모기를 쫓아 어머니가 편히 계실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편 진묵대사는 부처의 마음으로 살았으므로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산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중과 친숙하게 어울릴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이들에게 자식을 낳게 해준 이야기, 죄인을 풀어준 이야기 등은 모두 진묵대사의 자유로운 행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듬고 살리는 미륵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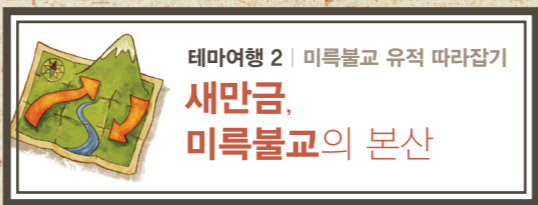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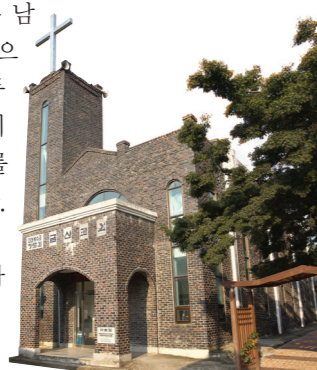
새만금 지역에서 발전한 미륵 불교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표율사가 그 일대를 미륵의 세계로 만들라는 계시를 받았다면, 부설거사의 이야기는 미륵 세상이 평등을 기본으로 하며 깨우침도 대중과 더불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진묵대사의 이야기는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도 보입니다. 바로 이들 모두 새로운 세계를 희망했고,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며, 생명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을 보듬고 상생하는 미륵 세계의 모습이며, 새만금 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만금 지역의 천주교와 기독교

천주교와 기독교 역시 새만금 지역에서 크게 일어났습니다. 1890년대 호남에는 3개의 성당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귀의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1907년, 모악산과 상두산 국사봉에 둘러싸인 위치에 웅대한 한국 전통 건축 양식으로 세워진 수류성당은 당시 전북 최초의 신식학교인 인명학교를 세워 신학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금산교회는 미국 데이트 선교사가 이 지방의 조덕삼, 이자의 등과 함께 1908년에 세웠습니다. 금산교회는 卍자 모양의 내부의 남쪽에는 남자 석, 동쪽에는 여자 석으로 나눠 예배를 보는 등 뿌리 깊은 남녀유별 과거를 해결하며 교회 문화를 민중에 확산시켰습니다. 당시 금산교회는 주변의 교회 중 교세가 가장 컸다고 전합니다. 🌈



모악산

호남정맥의 한가운데 해발 793m 국사봉을 머리로 이고 있는 모악산은 '평지돌출산'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평지 돌출산은 예로부터 선각자들의 보금자리로 알려져 왔습니다. 모악산은 <고려사>까지만 해도 '금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이름은 고찰에서 유래하는 경우가 많기에 '금산사'에서 연유했다고도 하고, 사금이 많이 나기에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금산사지>에 의하면 우리말 '큰 산'을 한문으로 음차해서 금산(金山)이 되었고, 역시 큰 산의 뜻인 '엄 뎡'을 모악(母岳)으로 표기했다고도 합니다. 모악산은 미륵의 산입니다. 모악산엔 미륵 신앙의 메카 금산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면 사람들은 여지없이 모악산에 모여들어 사회 변혁의 이상을 종전해 갔습니다. 진표율사, 후백제의 견훤, 기축옥사의 정여립, 한국 불교 최고의 기승 진묵대사부터 근세의 전봉준, 증산 강일순, 보천교 차경석, 원불교 소태산, 대순진리회 조철제, 증산도의 안경전 등이 이 지역에서 수도했고, 선도교, 태을도 등 증산계열만 해도 100여 개 종단이 난립했다고 합니다.



백제 부흥군이 마지막으로 완강히 저항하던 곳이 주류성은 그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지금의 부안군 우금산성(울금산성)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금산사

명찰 금산사는 모악산 서쪽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99년에 창건돼 1,400년이 넘는 금산사는 송광사와 더불어 호남 최고의 사찰로 수많은 말사를 거느리고 있는 미륵신앙의 성지입니다. 미륵 신앙은 미륵보살이 주재하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상생신앙과 말세를 구제하러 미륵이 내려 오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이상 사회를 제시하는 미래불인 미륵을 믿는 불교적 이상 사회관입니다. 금산사는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으나 인조 때 재건되었고 지금도 석련대, 당간 지주, 석종, 각종 탑 등 보물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금산사의 백미는 역시 웅장한 미륵전입니다. 미륵전의 겉모습은 3층으로 되어 있고, 내부에는 층이 없는 한 통이며 동양 최대의 실내 입불인 미륵불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부사의방

예로부터 변산은 능가산(楞迦山)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험해 오르기 어려운 산이란 뜻입니다. 변산에는 의상봉을 비롯해 쌍선봉, 관음봉 등의 봉우리가 있는데 최고봉인 의상봉(509m) 정상 바로 아래에 의상사터가 있습니다. 의상사는 신라의 고승 의상(625~702)이 지었다고 전하며, 지금은 대웅전터 등 석축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의 부사의방(不思議方)은 능가산 천길 벼랑에 자리잡고 있어 '세상의 눈으로 찾기도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의상사터에서 의상봉 쪽으로 올라가다가 확 트인 벼랑 끝에서 밧줄을 타고 30m 정도를 내려가면 절벽 중간에 4평 남짓한 공간이 나오는데 이 구멍한 곳이 부사의방입니다. 부사의방은 진표율사가 수도하며 미륵신앙을 잉태한 곳입니다. 이곳은 원효대사가 수도하던 개암사 뒤 원효방과 함께 변산의 가장 중요한 역사 유적지이면서 종교적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류성

백제 부흥군이 마지막으로 완강히 저항하던 곳이 주류성입니다.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지금의 부안군 우금산성(울금산성)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진표율사가 미륵불을 친견하고 깨우침을 얻은 곳을 '부사의방'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이 다른 아닌 주류성 길목이었습니다. 마지막 백제 부흥군이 처참하게 쓰러져간 곳에서 미륵불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진표율사는 부사 의방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금산사로 돌아와서 미륵전을 짓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월명암

변산면에서 내변산 쪽으로 향하다 남여치를 들머리 삼아 쌍선봉을 올라 15분여를 걸으면 월명암에 이르게 됩니다. 월명암은 부설거사가 692년에 창건해 무려 1,3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고찰입니다. 월명암 뒤 산 정상에 있는 낙조대에 오르면 멀리 고군산군도와 칠산어장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낙조대 가운데 전망이 가장 좋고 일출 광경이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특히 내변산의 여러 봉우리들이 부안호에서 피어오른 안개구름에 반쯤 잠긴 풍경을 '월명무애(月明霧靄)'라 하며 변산팔경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망해사



김제 망해사는 부설거사가 창건하고 입적한 후 800년의 시차를 두고 진묵대사가 수행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해사는 김제에서 서북방 약 27km 지점에 있으며 심포 어항에 이르기 1km 전방에서 오른쪽 언덕바지 진봉산 능선따라 올라가 고개 너머 왼쪽으로 즉 큰길에서 약 500m지점 정도를 내려가면 깎은 듯이 세워진 기암괴석 벼랑 위에 망망대해 서해의 파도가 출렁이고 고군산열도가 내다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어 그 이름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망해사는 진묵대사가 재건 복구해 크게 번창했는데 그 때가 망해사로서는 최강 전성기였으며, 그 후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004

완주 봉서사

용이 나간다고 해 이름이 붙여진 완주군 용진면에 위치한 봉서사(鳳棲寺)는 신라 성덕왕 때인 727년에 창건된 절입니다. 절의 이름은 뒤에 있는 서방산이 봉의 형상을 하고 있어 봉이 깃든다는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봉서사는 조선의 명승 진묵대사가 출가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경내에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제 제108호로 지정된 진묵대사부도가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산2번지

반계 유형원을 찾아서

실학의 모험이 시작된 개혁의 땅, 새만금

실학의 비자로 일컬어지는 반계 유형원은 그의 뛰어난 경륜에도 불구하고 초야에 묻혀
은둔생활을 하였는데, <반계수록>을 집필하며 20여 년을 보낸 ‘들쪽날쪽한 바닷가’가 바로 이곳
새만금의 중심인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입니다.
그가 꽃 피운 실학은 이후 전국에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어 마침내
실학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초야에 묻힌 대사상가

새만금 지역에서 꽃 피운 실학은 반계 유형원에서 비롯
됩니다. 그는 격변과 혼란의 시대에 자신을 스스로 부
안에 유폐시킨 후 당대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적 모색을 시도한 사상가입니다. 이후 그는 민생을 구
제하고 폐정을 극복하기 위한 문제에 골몰한 끝에 역저
<반계수록> 26권을 집필해 후대 학자들에게 막대한 영
향을 끼치게 됩니다.

서울 출신인 그가 부안군 우반동으로 숨어든 까닭은 세
종 때 우의정을 지낸 9대조 유관의 사패지지와 조부 유
성민의 집이 이곳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명문 사대부
가문의 좋은 환경에서 나고 자라 어려서부터 유학의 경
전을 읽으며 학업을 이어나갔던 유형원은 두 살 때 아
버지를 여의고 14세에 병자호란을 겪은 후 20대에 연
이어 조모 상과 모친상을 당하고 서른두 살 되던 해에
조부가 이주했던 부안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변산에 내
려온 그는 이듬해 진사과에 급제하였으나 이후로는 과
거를 단념했습니다. 이후 반계는 우반동에 20년간 묻
혀 살며 <반계수록>의 저술에 몰두했는데, 이때의 모습
을 후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반동은 변산에 있어 바닷가와 숲이 절승을 이루고
있었다. 삼간초옥을 송죽(松竹) 우거진 속에 지어 세상
을 등지고 저술을 업으로 삼았다. 서재에는 서가를 수
없이 올려 책을 무수히 쌓았고 대서립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사슴이 낮에도 울안을 찾아들면 선생은 이것을
낙으로 삼았다. ...”

조정에서는 변산 땅에 큰 인물이 숨어 있다 해서 현종 6
년에 관직에 오르도록 천거했으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
습니다. 이듬해 다시 한 번 천거되었으나 ‘내가 지금 재
상들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일까’ 하며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반계수록> 26권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피폐
해진 국력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제민의 정책론이라 정
의할 수 있습니다. <반계수록>에 나타난 내용의 특징
은 부민, 부국을 위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
니다. 그는 개혁의 요체를 자영농민의 육성에 있다고
보고 균전제(均田制)의 실시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토
지는 국가가 공유하고 일정량의 경지를 농민에게 나누
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제(兵制)는 병농일치
의 군사제도인 부병제를 주장하였는데, 이외에 과거제
의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국운을 걸고 과감하게 실천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개혁의지와 사상은 당시 재야지식인들의 이상론
이 되었으며 후학들의 학풍 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실학사상을 평하여 정인
보는 ‘조선 근고의 학술사를 종계하여 보면 반계가 일
조(一祖)요, 성호가 이조(二祖)요, 다산이 삼조(三祖)’
라고 하였습니다.

변산에 들어온 지 20년 되던 해인 1673년 3월 19일에
유형원은 그의 이상을 <반계수록> 26권에 수록해 두고
뜻을 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은 지 1백
여 년 뒤에 와서야 그의 인물됨과 <반계수록>의 내용이
알려지고 높은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국왕
영조는 그의 초고를 직접 읽어보고 크게 칭찬함과 동시

에 인쇄하여 세상에 널리 반포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영
조 46년인 1770년에 <반계수록>이 인쇄되어 세상에 나
왔으니 그가 죽은 지 97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



테마여행 3 | 반계 유적 따라잡기
**반계 유형원 선생의
반계수록**

반계의 흔적, 우반동

전라북도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는 우반동(愚磡洞)이라고도
부르는 마을입니다. 변산반도를 형성한 변산(邊山)의 산자락
을 따라 질펀한 평야가 넓혀 있고, 평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우반동의 중앙으로
흐르는 냇물이 바로 반계(磡溪)라는 물줄기입니다. 유형원은
이 냇물의 이름을 따 자신의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반계서당



변산반도 자락 우반동에 자리한 반계서당은 그야말로 우리나
라 실학이 탄생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수많은 실학자들이 그의 영향 아래 있으며, 그가 연구하고 주
창한 실학의 집대성인 <반계수록>을 이곳 반계서당에서 완성
했기 때문입니다. 반계서당은 현재 반계선생 유적지라는 이
름으로 전라북도 기념물 제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적지
에는 반계서당 외에 반계서당 유적비가 있습니다.

소재지 전북 부안군 보안면 우동리



새만금, 그 개혁의 땅

새로운 문명 탄생의 역사

새만금 지역은 개혁과 상생의 땅입니다. 대동사상에서부터 신흥민족종교 등 수많은 사상이 이곳에서 태동했으며 동학혁명은 마침내 이곳에서 그 뜨거운 불길을 피워 올렸습니다. 개혁과 변혁을 통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꿈꾸어왔던 곳, 새만금 지역에는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우주의 힘이 온축돼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여립과 대동사상

16세기의 사상가인 정여립은 벼슬을 내놓고 고향인 전주로 낙향한 뒤, 평소 꿈꿔왔던 민본사상과 유교적 이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김제를 거점으로 대동계를 조직해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퇴계의 예안 향약과 울곡의 해주 향약의 장단점을 보완해 태인고현 향약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임꺽정의 난을 겪었던 그는 백성들이 도둑이 되는 것은 임금의 정사가 잘못된 것이지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는 뜻을 설파하였고, 평소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했다고 전합니다. 대동(大同)을 논하며 반상의 차이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등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벼슬아치들에게 뽕박과 수탈만 받던 암울한 시절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포용하는 정여립을 어두운 현실을 구제할 영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여립은 진보적 개혁주의의 학문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과거, 현실, 미래를 유기적으로 생각했는데, 뚜렷한 비전이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는 시절 그의 출

현은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정여립은 "천하는 모두의 천하이므로 모든 이의 공유물이다. 왕위는 혈통으로 이어 갈 것이 아니고 왕제가 되는 인물에게 선양하여야 한다"는 진보적 정치 철학을 펼쳤습니다. 결국 그는 역모 조작 사건인 기축사화로 희생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인권주의와 공화주의를 제창한 선각자인 동시에 시대를 앞선 사상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혁을 꿈꾸었던 동학의 땅

내 안에 한울님을 모셔 새로운 세상을 이루자며 '개혁'을 외쳐 한국 신종교의 사상적 주축이 된 동학. 사실 동학은 수운 최제우(1824~1864)에 의해 경주에서 태동했으나, 사람들은 동학의 땅 하면 자연스럽게 새만금 지역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이유는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동학농민혁명의 기치가 바로 이곳에서 올랐기 때문입니다.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는 주로 경상도와 남원 일대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후 2대 교주가 된 해월 최시형(1827~1898)은 가난 때문에 겨우 천자

문이나 뻗을 정도로 학문이 깊지 않았지만 뛰어난 법설과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동학의 세를 확산해 나갑니다. 급기야 당시 무능한 정부와 부패한 지방수령들의 수탈을 참을 수 없게 되자, 1894년 1월 마침내 전봉준(1855~1895)을 중심으로 "못 백성들이 원통해 한탄함으로 백성을 위해 해를 제거하고, 세상 일이 날로 그릇되어 감으로 분개해 세상을 건지고자" 거사를 계획하고 현재 정읍인 고부 관아를 습격하게 됩니다. 이후 제폭구민과 척양척왜를 표방한 동학농민군은 4월7일 전주를 점거하는 등 호남 일대를 장악하는 파죽지세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정부가 원병을 청한 청일 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폐정개혁안 시행과 동학집강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화약을 맺고 전주성을 관군에게 양도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 장악을 위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하고 친일내각을 수립한 뒤 허울뿐인 갑오경장을 실시하자 동학 농민군은 대일 항전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전국에 걸쳐 수십만의 대군을 형성해 삼남 일대와 충청도까지 장악합니다. 하지만 복상한 동학 농민군은 일본의 신무기에 밀려 공주 우금치에서 대접전 끝에 패퇴당하고 뜻을 좌절하고 맙니다.

전봉준의 출생지와 활동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봉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무대가 바로 이곳 새만금 일대였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지역이 혁명의 진원지였던 데는 몇 가지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됩니다. 당시 고부와 금만 평야는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 수령의 수탈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차별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의 수탈과 학정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즉 이 땅의 민중적이고 개혁적이며 저항적인 성격이 직간접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터전이 된 것입니다.

상생과 조화의 개혁, 신흥민족종교

증산교의 창시자인 강일순은 1871년 전북 고부

군 우덕면 객망리(현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그러니까 후일 동학이 혁명을 일으킨 땅에서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던 그는 서른한 살에 모악산 산꼭대기 대원사에 올라가 49일간 먹지도 않고 출입도 없이 명상하고 주문을 외우고 울부짖은 끝에 천하를 바로잡는 '해원상생', 즉 화해와 상생의 도를 깨우쳤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줄곧 금산사 아래 동곡 마을을 중심으로 증산의 도를 펼쳐나갑니다. 특히 증산은 인간 세상의 혼란과 모순, 부조리가 모두 선천(先天) 시대의 상극 기

